

원불교 2세기와 예비교무 교육*

고 시 용
원광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미래교육환경의 주요변화를 예측하고 원불교 2세기를 열어갈 예비교무의 교육방향 중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발전에 비추어볼 때 후기정보화시대에 해당하고, 인구변화, 가족구조변화, 단일통화, 제1언어 영어, 바이오컴퓨터와 인공지능장치, 비종교적 방향이 추세로 전망되는 원불교 2세기가 요청하는 교무는 크게 두 가지로 귀결된다고 본다. ‘교화전문가, 원불교학 전문인재’가 그것이다.

원불교 예비교무 교육기관은 교수 여건의 변화에 따른 교수방법의 개선, 전무출신 지원자 감소에 따른 교육 잠재인구의 발굴과 수용, 학교 유희시설의 활용, 학교기능의 확대 등의 과제를 떠안게 될 것이다. 논자는 예비교무 교육에 있어서 중점을 두어야 할 방향을 몇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육영교육기관장 및 교수요원의 전문성과 지속성, 책임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예비교무 기초교육 강화 및 기본교육 내실화가 시급하다. 셋째, 교학교과와 서원교과의 융합교육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넷째, 원불교학연구 전문인재양성에 소홀하지 않아야한다. 다섯째, 시대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인재발굴 방식으로 전무출신 지원자 급감을 극복해야 한다.

핵심주제어: 원불교 2세기, 후기정보화사회, 예비교무 교육발전안, 미래교육, 원불교학

I. 서언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다. 교육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의 흥망이 교육에 달려있다. 원불교는 지난 1세기동안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무엇보다 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고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해왔다. 초창기부터 영산과 총부에 학원을 설치하여 교단인재양성 전문기관 설립을 꾀하였고 총부를 비롯한 각처에서 야학원을 개설했다. 특히 전무출신을 서원한 예비교무의 교육에 대해서는 더욱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해왔다. 광복이후 전무출신 양성기관 ‘유일학림’(1946)을 발 빠르게 개설하였고 원불교의 개교정신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교육 사업을 전개하는 ‘원광대학’(1951)의 설립인가로 발전되었다. 그 후 학사학위를 가진 교무가 배출됨으로써 원불교가 한국사회에 비교적 빠르게 정착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했다.

반면에 ‘원불교 교육의 위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예비교무 교육발전은 교회화성화와 함께 원불교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교육이 교운(敎運)이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예비교무 교육발전위원회가 10개월의 연구 끝에 교육이념과 교육목표를 설정하고¹⁾ 수립한 「예비교무 교육발전안」(1991, 이하 ‘교육발전안’이라 칭함.)을 바탕으로 일대 혁신을 도모하였다. 「교육발전안」의 주요내용은 “①교육연한의 연장(6년제), ②이수학점의 확대(160학점), ③실천교회 교과목의 증설, ④서원(생활)지도체제의 강화, ⑤교육방법의 쇄신, ⑥교육평가제도의 개선, ⑦교수요원 선발양성제도 시행, ⑧연구기관의 설립, ⑨인재 예비양성제도 도입, ⑩근무제도의 개선, ⑪교육행정체제의 정비, ⑫교육재정의 집중투자”이다. 이에 의거하여 원기77년(1992)부터 원기83년(1998)까지 육영교육기관과 교육체제를 확대 개편하고 예비교무 교육의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왔다.²⁾

그 결과 ‘영산학원’은 4년제 정규대학인 ‘영산원불교대학교’(1996)로 발전하였고, ‘영산선학대학교’(2004)로 개명 인가되었다. 아울러 ‘동산선원’이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설립인가(1997)로 계승 발전됨으로써 학부과정(4년제)과 대학원과정(2년제)의 교육체제가 완성되었다. 더 나아가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2002)를 개교하여 세계교화를 담당할 인재양성에도 기반을 닦았다. 그러므로 「교육발전안」은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새로운 시대를 향도할 유능한 교무 양성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교단적인 역량을 집결하여 외형적으로 교육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³⁾

1) * 원불교의 교육이념: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에 바탕하여 인류를 두루 교육함으로써 시대의 문명을 촉진시키고 제생의세의 사명을 실현하여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

* 전무출신 교육목적: 원불교 교육이념에 바탕하여 전무출신의 기본자세를 확립하고 후천개벽시대를 선도할 전무출신을 양성하는 데 있다.

* 예비교무 교육목표: ①전무출신으로서의 출가 서원을 굳건히 한다.(출가서원확립), ②일원상 진리를 신앙하고 수행하는 종교적 품성을 도야한다.(종교적 품성 도야), ③교법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교회역량을 배양한다.(교회역량배양), ④공중을 위해 자기를 헌신하는 봉공자세를 확립한다.(봉공자세확립), ⑤사회·국가·세계적 과제에 기여하는 창조적 지성을 함양한다.(창조적 지성 함양), ⑥더불어 사는 삶의 윤리와 자세를 기른다.(공동체적 삶 구현)

2) 「교육발전안」은 원기77~83년에 전적 추진되었으며 연도별 시행계획(14개 영역 97개 항목)을 기준으로 실행률은 약89%에 달한다.(실행 61항목, 부분실행 25항목, 미실행 11항목)

하지만 내적인 성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마냥 긍정적인 평가만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⁴⁾ 지속적으로 전무출신 지원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교육발전안」 시행 이래로 약25년 동안 학부과정 양교(兩校)의 입학정원이 100% 충원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⁵⁾ 교단적으로 적지 않은 교육비용을 투자하여 학부과정을 거쳐 실천교학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한 교학력의 교무들이 1998년(원기83)부터 2013년(원기98)까지 16년간 모두 551명이나 배출되었지만⁶⁾ 교화현장의 양적 성장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⁷⁾ 아이러니하게도 예비교무 교육을 강화하고 배출된 교무들이 교화현장에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모했던 교화성장과 발전은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교육발전안」의 실행이 정량적으로나 정성적으로도 교화성장과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별로 없다는 반성과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교육발전안」은 미래사회에 대한 예측과 전망이 미흡했고, 미래의 교화성장 및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를 육성하지 못했으며, 선택과 집중에 소홀했다는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불교의 새로운 100년을 앞두고 예비교무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재논의와 재정비가 필요하며 대책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⁸⁾ 따라서 본고에서는 예비교무 교육을 원불교 육영교육기관(학부, 대학원)의 교육과정으로 전제하면서 미래교육환경의 주요변화를 예측하고 새로운 2세기를 열어갈 예비교무의 교육방향 가운데 역점을 두어야 할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3) 「예비교무 교육발전안 자료분석 및 평가보고서」(2014.3.30)에 따르면 연도별 시행계획기준 실행률이 약89%에 달한다. 육영교육기관 발전기금은 약56억7천만원을 조성하여 분급되었다.(영산선학대학교 30억4천만원,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서원관 10억7천만원, 원불교대학원대학교 15억6천만원)

4) 예비교무 교육발전안의 시행에 따른 평가와 각 육영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예비교무 교육발전안에 의한 교역자 양성 교육기관 종합평가보고서」(1998), 「원불교대학원대학교 평가보고서」(2012), 「원불교 예비교무 교육발전안 자료분석 및 평가보고서」(2014) 등이 그것이다.

5) 우리나라는 유엔에 가입한 192개국 중 출산율이 최하위로 1.15명이 채 안 된다. 이미 우리나라 정부는 2015년이 되면 대학입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생 수보다 많아진다고 발표했다. 교육발전안은 교화침체와 2015년 인구의 자연감소가 오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6) 교육발전안의 완성년도인 1997년(원기82)을 기준으로 전후 16년간 배출된 교무의 통계를 비교하면 연평균 ‘완성 전 47.3명, 완성 후 34.4명’으로 오히려 12.9명(-27.3%) 감소하였음. 남자 교무는 21명에서 19.7명으로 1.3명 감소(-6.3%)하였고, 여자 교무는 26.3명에서 14.7명(-44.1%)으로 감소하였으므로 여자 교무의 감소추세가 매우 뚜렷하다.(「원불교 예비교무 교육발전안 자료분석 및 평가보고서」, 2014, 114쪽 참조.)

7) 1997년 예비교무 교육제도에 대한 의식조사 분석 결과, 4+2체제 이후 석사학력이 현장교화에 도움이 되긴 하겠으나 영향을 미칠만큼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교무들의 공지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양제우, 「예비교무 교육제도 개선방향」, 『원불교사상』 제21집, 원불교사상연구원, 1997, 279~283쪽 참조)

8) 이런 시점에서 지난 10개월간(원기98년 11월 4일~원기99년 10월22일) 가동되었던 ‘예비교무 교육개혁위원회’가 현행 예비교무 교육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잠정결론을 내렸다는 최근소식은 아쉬움이 남는다.

Ⅱ. 원불교 2세기와 교화 키워드

소태산 대종사는 원불교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사오십년 결실(結實)이요, 사오백년 결복(結福)이라”고 예언했다. ‘결실’은 원불교의 법 종자가 우리나라에서 분명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을 의미하고, ‘결복’은 그 법 종자가 세계에 널리 전파되어 온 세상에 고루 복과(福果)를 맺게 될 것을 의미한다.⁹⁾ 소태산 대종사의 전망처럼 지난 1세기 동안 원불교는 우리나라에서 분명한 결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교화·교육·자선의 방면에서 종교적 위상을 비교적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수 백 개 교당, 원광대학교를 위시한 고등교육기관, 영산성지고등학교를 위시한 대안교육기관, 한겨레중고등학교로 대표되는 새터민 교육기관, 삼동회를 위시한 각 사회복지법인의 전국화, 원음방송 개국, 군종장교 편입종교 선정 등이 그 예이다.

그렇다면 **2세기를 앞둔 원불교의 당면과제는 “사오백년 결복을 어떻게 맺을 것인가?”이다.** 불법의 시대화·생활화·대중화를 선언한 원불교가 결복기 교운을 열어가려면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태세를 갖추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도해야한다는 난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어느 방면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인다. 예컨대 공부에는 뜻이 적고 광대 소리 하기를 즐겨한 사람은 숨은 명창이 되고, 진리 방면에 취미를 가진 사람은 진리 생활을 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¹⁰⁾ 같은 맥락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하기 보다는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개인과 조직, 단체가 발전하고 성공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원불교 2세기는 어떤 시대가 전개될 것인지 전망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하여 과학기술의 혁명,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에너지 환경문제, 남북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미래지향적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 교육의 중요한 과제다. 여기서는 지면관계상 우리나라로 범위를 국한하여 몇 가지 주요한 흐름과 교화 키워드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원불교 2세기는 인류의 역사발전에 비추어볼 때 후기정보화시대에 해당한다.** “농경시대의 권력은 종교였다. 신을 등에 업은 사람이 가장 강했다. 산업시대에서는 권력이 국가로 이동했다. 정보화시대에는 기업이 더 큰 권력을 갖는다. 하지만 후기 정보화시대가 되면 권력은 기업이 아닌 개인으로 이동될 것이다. 비슷한 논리로 정보화시대에는 네트워크를 많이 가진 자가 권력자가 된다. 후기정보화시대에는 인구 자체가 부가 된다. 우선 개체수가 많아야 한다. 대신 국가의 권력은 급속히 쇠퇴할 것이다. 대신 기업, 개인, 네트워크그룹, NGO의 권력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¹¹⁾ 이러한 후기정보화시대의 흐름에

9) 「정산종사 법어」 제13 도운편 1장 참조.

10) 「대종경」 제3 수행품 11장 참조.

11) 「2030 국가미래보고서」, 노르웨이.

대응하는 원불교 2세기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보다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교도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교화단 조직을 통한 교화활성화’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것인지 지혜를 모으고 총력을 기울일 때다. 아울러 ‘언플러그 앤 릴렉스(Unplug & Relax), 즉 플러그를 빼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거대한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에서 떨어져 나와 링크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교화프로그램이 각광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반된 양면을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또한 **원불교 2세기에는 인구변화가 큰 변수로 등장한다.** 신생아는 줄고 노인이 늘면서 한국은 이미 200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돌파하여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접어들었다.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초과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 2026년에는 20%를 돌파하여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젊은이들은 자신의 나약한 어깨에 노인들을 짊어지고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미래를 더욱 어둡고 무겁게 느낀다. 뿐만 아니라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노인들은 힘든 말년을 보내야 한다. 평균수명이 더욱 길어짐에 따라서 건강관리가 강력한 트렌드로 발전할 것이다. 누구나 건강하게 늙을 준비를 하고 인생의 중심점이 뒤로 옮겨지면서 새로운 인생단계가 생겨난다. 자녀양육을 마친 50~70세 사이는 인생을 새롭게 꾸밀 수 있는 자유훈의 단계로 인식된다. 그러한 가운데 영양섭취,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주제로 부각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노인교화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된다.

다음으로 **원불교 2세기에 가족구조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미혼모, 이혼, 한 부모, 별거, 동거, 공거, 재혼, 비혼, DINK(Double Income, No Kids), 동성애뿐만 아니라, 대부분 노동·교육·서비스 산업의 이동 등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1인 가구, 무자녀가정이 늘어나는 등 미래의 가족구조는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진다. 따라서 ‘변하는 가족구조에 맞는 맞춤형교화프로그램’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점차 하나의 세계가 되어 단일통화가 사용되고, 영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바이오컴퓨터¹²⁾와 인공지능장치에 더욱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전통적인 종교의 믿음과 관습, 기관, 그리고 의식들보다는 비종교적인 것들에 대한 방향으로 삶이 변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SBNR¹³⁾의 추세에 대응하고 원불교 교법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은혜확산 프로젝트, 마음공부의 사회적 확산, 깨달음의 사회화’ 등의 구체적인 교화활동을 더욱 치밀하게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전

12) 인간의 뇌신경에 필적하는 기능을 갖춘 제6세대 컴퓨터.

13)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은 상태를 일컫는 말로서, 개인주의 성향 혹은 기존 종교에 대한 회의와 반발로 또 하나의 (대안)종교가 되어가며, 그들만의 세계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형성해나가고 있다.

개해야 할 것이다.

Ⅲ. 미래교육의 특성과 과제

미래교육의 특성은 개별학습, 적시학습, 집단지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①개별학습은 학생 개개인의 지적 수준과 그 사람이 배우고 싶어 하는 분야와 현재 수준을 감안해 각자에게 맞는 지식을 제공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②적시학습은 특정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그 지식을 제때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당연히 평생학습에 대한 필요성도 커진다. ③집단지성은 소수의 전문가보다 다수의 비전문가의 지성이 더 우수하다는 것이다. 모든 구성원들은 개방, 참여, 공유를 기본정신으로 개인의 지성을 언제든지 업데이트, 수정, 보완하여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한다.

과거에는 지식이 경전이나 책, 어른과 교사의 머릿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이 지식의 집결지가 되고 있으며 유통되는 지식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유효기간도 짧아지면서 지식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이런 변화무쌍한 현실 속에서 **가장 확실히 예상되는 것은 미래교육이 온라인세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교육 포털인 아이튠즈(iTunes),¹⁴⁾ 아마존(www.amazon.com),¹⁵⁾ 위키피디아(www.wikipedia.org),¹⁶⁾ 세컨드 라이프(www.secondlife.com),¹⁷⁾ 칸 아카데미(www.khanacademy.net),¹⁸⁾ 라이브 모카(www.livemocha.com)¹⁹⁾ 등이 그것이다. 일반 대중이 온라인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약 없이 강의(자료)를 만들어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교육현장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 미래교육은 정보를 전달받는 수동적인 교육이 아니라 개방적이면서도 현장에서 바로 연결되는 능동적인 교육이다.

미래의 인간은 절반은 기계, 절반은 인간의 몸을 하고 칩이나 센서를 달거나 다양한 기기를 팔목에 끼고, 옷이나 몸에 컴퓨터 칩을 넣고 다닐 것으로 예측된다. 인간의 기억용

14) 애플사에서 개발한 디지털 미디어 플레이어로서 디지털 노래, 영상 파일을 재생하고 정리하는 데 사용된다.

15) 1995년 7월에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인터넷 서점이다.

16) 2001년 1월 15일 시작된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사용자 참여의 온라인 백과사전이다. 200여개 언어로 다양한 방면의 지식들이 방대한 내용과 분량으로 끊임없이 갱신되고 있다.

17) 2003년에 시작된 인터넷 기반의 가상세계이다.

18) 2006년 살만 칸이 만든 비영리 교육 서비스로서 초·중·고교 수준의 수학, 화학, 물리학부터 컴퓨터 공학, 금융, 역사, 예술까지 4000여개의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내 2만여개 학교에서 교육 자료로 쓰이고 있다. 2012년 방문자는 4300만여 명으로, 65%가 미국, 나머지 35%는 전 세계 210여개 국에서 왔다.

19) 2007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해서 195개국의 1000만 명에 가까운 이용자들이 39개의 언어를 배우는 장으로 발전했다.

량은 웨어러블 컴퓨터로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을 더 이상 외울 필요가 없어진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지식과 정보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들을 분석하고 창의적으로 조합하고 상품으로 만드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다. 즉 미래의 교육과 학습은 단순한 암기보다 오픈소스 정보에서 필요한 정보를 논리적으로 통합하는 창의적 사고력을 요구한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미래교육은 대형 교육포털에서 정보를 무료로 꺼내 쓰게 되므로 창의력 교육이 최대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교육은 웹사이트 안에 존재하는 정보를 찾아내고 자신만의 지식으로 만들어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교육기관의 역할변화가 자연스럽게 요청된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시험을 치는 역할은 초단위로 업데이트되는 교육포털에 맡겨지기 때문에 교육기관은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즉 **교육기관은 공동체 삶, 체험, 네트워크, 스킨십, 리더십, 팀워크를 서로 묻고 배우며 공유하고 소통을 촉진시키는 현장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교사의 역할은 가르치는 것에서 지도하는 것으로 바뀐다. 인터넷강의 보급이 점차 증가하고 시험을 볼 때 부분적으로 지식관련 정보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허용될 것이다. 또 **한 분야의 뛰어난 능력을 갖춘 교사가 단독으로 전 세계의 모든 학생을 가르칠 수도 있다.** 교육의 독점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지식과 정보, 첨단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올바르게 예측하고 문제해결방안을 구상하고 제시하는 것이 학생들의 주요과제가 된다.

미래의 예비교무교육 역시 이러한 추세를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초등교육, 중등교육과정에서 인터넷과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하며 창의력을 갖춘 인재로 육성되었기 때문에 육영교육기관도 그 연장선상에서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수방법의 개선, 유희시설의 활용 및 기능 확대 등의 과제에 자연스럽게 직면한다.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도 **인터넷과 전자기기를 활용한 교육과 학습이 활발히 전개되는 추세**가 확고해지기 때문에 결국 육영교육기관 구조조정 및 통폐합, 교원수급계획에 대한 논의가 머지않아 다시 대두될 것이다.

물론 예비교무 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무출신의 기본자세를 확립하고 후천개벽시대를 선도할 교무를 양성”²⁰⁾하는 교육목적 달성과 “출가서원 확립, 종교적 품성도야, 교화역량배양, 봉공자세확립, 창조적 지성함양, 공동체적 삶 구현”²¹⁾이라는 교육목표 달성이다. 따라서 「교육발전안」에서 제시한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는 원불교 2세기에 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그러한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공간만이 아니라 비디지털 교육공간이 매우 중요하며 상호 융합되었을 때**

20) 「예비전무출신 교육에 관한 규칙」, 제4조(교육목적) 참조.

21) 「예비전무출신 교육에 관한 규칙」, 제5조(교육목표) 참조.

비로소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예를 들어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은 물론이요, 심고와 기도, 독경, 설교, 법회, 의례, 성지순례, 교화단 조직관리, 상담, 교당경영 등 교무가 갖추어야 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비디지털 교육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과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후기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신앙수행공동체 결성과 그 지도자로서 우수한 교무를 육성해야 원불교가 미래 세상에 제대로 설 수 있을 것이다.**

단언컨대 원불교의 미래는 예비교무 교육에 달려있다. 예비교무 교육은 멀고도 험한 길이다. 사오백년 결복을 향해 초점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사회에 교무는 어떤 존재일까?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전무출신으로서 확고한 서원과 정신, 자세는 기본이요, 관건은 미래사회에서 활발히 교화하는 교무를 육성하는 데에 달려있다. 미래의 교무는 세계를 향하여 끝없이 열려있어야 하며 세계를 이해해야 한다. 그는 일원상 진리에 입각한 교무여야 하기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과학을 포함한 문학, 예술 등과의 만남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미래학적 관점에서 본 교무는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하고 수행하면서 멀티 플레이어 리더십이 강하고 경험이 많으며, 문제해결능력, 창의적·분석적 사고, 팀워크, 의사소통능력, 의사결정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예비교무 교육과정에서 배우고 익힌 내용이 교무가 되어 현실에서 시의적절한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교육목적과 교육목표가 달성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교육발전안」에서 최우선적으로 ‘4+2 교육체제’를 역설하면서 대학원 설립을 추진한 목적도 ‘전문 교화자 양성’에 있었음을 다시 상기하고 입증해야 한다.

IV. 예비교무 미래교육의 중점방향

우선 교무에 대한 교도의 인식 및 평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교육만으로도 교무로서의 자질향상과 실력증진에 충분하다’는 질문에 13%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교도들은 교법에 대한 신념부족, 신앙수행체험 부족, 상담능력 부족 등을 지적했고, 일원상 진리에 토가 떨어진 교무를 요구했다.²²⁾ 교도들은 교무가 갖추어야 할 덕목의 중요도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①대자비심, ②정성심, ③공부심이지만, 현재 교무들의 장점은 ①근검절약정신, ②정성심, ③공익심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현재 교무들의 단점으로 ①비전제시능력, ②예술적 감각, ③전문가 정신을 꼽았다.²³⁾ 여기서 예비교무 교육의 시사점을 찾는다면 단점을 보완할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불교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가

22) “교육이 교운이다.”, 「원불교신문」 제1052호, 2000년 4월 14일.

23) 원불교정책연구소, 「새미래통신」 Vol.9, 2010년 3월, 7쪽 참조.

려면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개선해야 한다. 앞으로 예비교무 교육에 있어서 중점을 두어야 할 방향을 간략하게 제언하고자 한다.²⁴⁾

첫째, 육영교육기관장 및 교수요원의 전문성과 지속성, 책임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전무출신 발굴의 책임은 교단 전체에게 투영되고, 실무는 교정원 교육부 주관 및 학부 육영교육기관 당무자의 업무로 여겨진다. 각 육영교육기관에서는 전공영역별 교수요원과 전문인력의 충원을 통한 내실화 추진이 시급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정기인사에 따라 육영교육기관장은 수시로 인사 조치되며 그에 따라 교수요원 인사도 상당수 새로이 배속된다. 빠른 시대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완수해야 하지만 주체가 모호하여 공의를 거쳐 진행한다는 절차논리에 따라 미봉책만 나열되거나 순연됨으로써 산적한 과제만 남게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100년을 틀잡아갈 육영교육기관장의 책무를 보장하고 전문성과 지속성 있는 예비교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예비교무 기초교육 강화 및 기본교육 내실화가 시급하다. 예비교무는 무엇보다 원불교 교리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예비교무들의 중등교육기간 학업성적 편차가 매우 크므로 학부과정에서부터 기초교육과 기본교육을 강화하여 인재를 길러내는 노력이 절실하다. 원불교학의 능통함이 배양되어야 하며, 『정전』과 『대중경』을 비롯한 원불교 경전연마에 각별히 힘써야 한다. 더불어 일원상 진리를 학제적 접근에 따라 과감하고 자유롭게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통섭적 접근으로 심도 있게 조망하는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²⁵⁾ 이를 위해서는 예비교무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학 교육과정은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와 영산선학대학교가 각각 장점을 살려 특성화를 추구하되 예비교무로서 공통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기초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졸업 후 대학원 교육과정과 연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육영교육기관 간에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여 ‘학생교류, 학점교류, 공동교과목 인터넷강의 개발 및 운영’ 등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 (가칭)육영교육기관 교수협의회는 미래의 변화를 예측해서 자신들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예비교무들이 미래사회와 교화현장에 잘 적응하고 교화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과정 개혁을 위한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고육지책(苦肉之策)에 해당하겠으나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예비교무는 엄정한 평가와 심사를 거쳐 탈락시켜야 한다.

셋째, 교학교과와 서원교과의 융합교육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예비교무 교육의 교과과정은 서원교과과정과 교학교과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원교과과정은 정기·상시의 신

24) 물론 교육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 교육연한, 교육체제,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일반대학원 및 기성특수 전문인재 양성, 교수요원, 연구기관의 설치, 인재선발 및 근무제도, 교육환경, 교육시설, 교육재정, 장학제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쟁점을 도출할 수도 있다.

25) 박정원, “출가 재가 후속 세대는 양성되고 있는가”, 원불교신문, 원기98년 11월 1일.

양·수행 혼련 및 기타 일과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교과과정이고,²⁶⁾ 교학교과과정은 원불교학 및 인접학문 탐구를 위한 교과과정이다.²⁷⁾ 두 교과과정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교육방법은 교육발전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더 중요한 것은 교육 과정이 아니라 교육방법에 있다고 본다.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정전』을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 교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교수법까지 지도해야 한다. 교무는 학창시절 교수들로부터 배운 것을 바탕으로 교화현장에서 교도들에게 적용하기 마련이다. 예컨대 신앙, 수행, 교화의 구체적 실천행위로서 마음공부, 기도, 좌선 및 무시선, 염불, 일기, 교화단, 상담, 순교, 의례 등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실습이 연계되어 복합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각 교학교과와 서원교과에 대한 교수방법론을 담은 교재가 개발되고 융합교육체제가 가동되어야 한다.

넷째, 원불교학연구 전문인재양성에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원불교가 세계주세교단으로 발돋움하려면 무엇보다도 학문으로서 원불교학의 체계정립이 필수적이다. 「제3대 제2회 종합발전계획」의 추진 평가결과 중에서 ‘원불교학 체계확립’은 아래 <표1>과 같이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²⁸⁾ 특히 원불교학 연구인력 육성은 매우 저조한데, 이들이 예비 교무 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조만간 원불교의 교육과 연구가 모두 어려움에 봉착할 것을 암시하는 평가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단 제3대 제3회 설계」에서 설정한 “원불교학의 체계를 확립하고, 교육을 통한 교법실현으로 마음공부 사회화와 인성교육을 확산한다.”²⁹⁾는 <표 2>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행주체를 명시하고 전문인재를 투입하여 실행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

<표 1> 제3대 제2회 종합발전계획 과제별 평가

전략과제 (%)	Sub-전략과제 (%)	실천과제	속성	성취도 (%)
5. 원불교 문화 창달 (C/48.6)	5-1. 원불교학 체계확립 (D+/37.8)	5-1-1. 원불교 사상의 보편화	실행	C (60)
		5-1-2. 교학연구 인력 육성	중점	E (20)
		5-1-3. 학술정보망 구축	실행	D (33.3)

26) 8조 1항.

27) 8조 2항.

28) 원불교 교정원, 「교단 제3대 제3회 설계보고서」, 원기97년 11월 6일, 3-4쪽.

29) 원불교 교정원, 「교단 제3대 제3회 설계보고서(원기97~108년)」, 원기97년 11월 6일, 30쪽 참조.

〈표 2〉 목표 3. 교법에 바탕한 인성교육 선도·확산

핵심과제	개요 및 실천과제
10. 원불교학의 세계화	○ 원불교학의 체계를 확립하고 세계적 학술활동 참여를 통해 원불교 사상의 보편화, 세계화를 도모한다. 10-1. 원불교학 학문체계 확립 10-2. 원불교사상의 보편화
11. 마음인문학 정립	○ 마음인문학 연구소와 연계하여 교법에 근거한 마음공부 이념을 정립하고 마음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마음공부를 확산한다. 11-1. 마음인문학의 연구기반 및 협력체계 구축 11-2. 마음인문학의 패러다임 정립 및 사회적 확산
12. 마음공부 사회화	○ 마음공부 지도사 양성 및 교당, 기관, 교구, 교립학교를 통하여 마음공부를 사회에 확산한다. 12-1. 마음공부 지도사 양성 12-2. 청소년 인성교육 선도 12-3. 마음공부방 개설 확산
13. 국제마음훈련원 건립 및 국민·인류훈련 확산	○ 100년성업의 일환으로 건립되는 국제마음훈련원을 기점으로 마음공부 사회화를 위한 국민·인류훈련을 확산한다. 13-1. 영산, 익산 국제마음훈련원 건립 13-2. 프로그램 개발과 네트워크 구축

먼저 원불교학 학문체계 확립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³⁰⁾에 따르면 원불교학 분류코드는 ‘HB0704 한국신종교’의 하위분류인 세분류에 명시되어있다. 즉 대분류(33개, 공공 X 13개+ 산업 Y 20개) 가운데 ‘공공 X11. 문화, 여가증진, 종교 및 매스미디어’에 해당하고, 중분류 중에서 ‘HB철학/종교’에 배속되어 있다. 그에 따른 소분류는 ‘HB0704 한국신종교’이고 원불교학은 그 아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학술연구분야분류표〉(2012)³¹⁾ 원불교학의 연구분야코드는 ‘A041702’이다. “대분류명-인문학, 중분류명-종교학, 소분류명-한국종교, 세분류명-원불교학”으로 배속되어있다. (〈표3〉, 〈표4〉 참조)³²⁾ 따라서 원불교학 학문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원불교학

3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4호, 2012년 9월 13일.

31) 한국연구재단에서 1999년 11월부터 사용하고 있는 〈학술연구분야분류표〉는 학술연구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 운영 등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 학술연구지원의 관리 통계, 대학의 연구활동 실태 등의 조사, 연구과제의 접수와 심사 및 평가자의 선정 등에 활용된다.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등 4개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분류체계는 대분류(8개)-중분류(152)-소분류(1,551개)-세분류(2,468개)로 구성된 수직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32) “원불교가 새 종교인가? 새 불교인가?”를 놓고 양론이 분분하지만 정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이미 1999년 (원기84)부터 중분류명 ‘불교학’이 아닌 ‘종교학’의 소분류명 ‘한국신종교’에 배정한 것도 참고할 바이다.

을 소분류로 승격시키고, 장기적으로 중분류로 위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결국 해당 학문의 전공자를 꾸준히 배출해야 한다. 원불교학을 전공하는 박사학위 취득자를 많이 양성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소분류별 전공영역을 설정하여 해당 분야를 연구하는 전공자들의 학술활동이 다양한 방면에서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

〈표 3〉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2012)

중분류		소분류	
종교학	HB06 종교일반	HB0601. 비교종교학 HB0603. 종교철학 HB0605. 종교사회학 HB0607. 종교교육학 HB0609. 신화/의례 HB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종교일반	HB0602. 종교현상학 HB0604. 종교심리학 HB0606. 종교인류학 HB0608. 종교윤리학
	HB07 한국종교	HB0701. 한국종교일반 HB0703. 무속/민속종교 HB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한국종교	HB0702. 한국종교사 HB0704. 한국신종교
	HB08 동양종교	HB0801. 인도종교 HB0803. 일본종교 HB0805. 중앙아시아종교 HB0807. 유교 HB0809. 샤머니즘 HB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동양종교	HB0802. 중국종교 HB0804. 동남아종교 HB0806. 불교 HB0808. 도교
	HB09 서양종교/기타 지역종교	HB0901. 유대교 HB0903. 가톨릭신학 HB0905. 기타지역종교(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HB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서양종교 및 기타지역종교	HB0902. 기독교신학 HB0904. 이슬람교
	HB99 기타 철학/종교	HB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철학/종교	

〈표 4〉 한국연구재단 연구분야 분류표(2012)

대분류명	인문학				
중분류명	종교학	기독교신학	가톨릭신학	유교학	불교학
소분류명	종교철학	구약학	기초신학	유교철학	근본불교
	종교심리학	신약학	교의신학	유교윤리학	천태학
	종교현상학	교회사	전례신학	유교교육학	화엄학
	종교사회학	조직신학	영성신학	유교사회학	유식학
	종교사	기독교윤리	윤리신학	유교정치학	정토학
	신비주의	기독교교육	선교신학	기타유교학	계율학
	비교종교학	실천신학	사목신학		중관학
	도교	여성신학	교회사		밀교
	유대교	선교신학	교부학		선학

	이슬람 무(巫)교 한국자생종교 중국종교 인도종교 중동종교 서양종교 한국종교 기타종교학	교회음악 목회상담학 문화신학 기타기독교신학	성서학(신/구약) 교회법 교리교육학 일치신학 동방교회신학 기타가톨릭신학		불교윤리 불교교육 불교문화학 지역불교및불교사연구 응용불교학 기타불교학
세분류명	한국종교일반 원불교학				

다섯째, 시대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인재발굴 방식으로 전무출신 지원자 급감을 극복해야 한다. 2014년 현재 육영교육기관의 입학정원은 학부 80명(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30명, 영산선학대학교 50명), 대학원 65명(원불교대학원대학교 60명,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 5명)으로 지원예상자보다 많아 상당기간 지속해서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2013) 학생법회 평균출석수 20명 이상 교당은 겨우 4개에 불과하다.(정토회교당 36명, 부송교당 25명, 동영교당 24명, 영광교당 21명) 10명 이상 평균출석수 교당은 25개이다.³³⁾ 전국 각 지역교당 학생법회 출석수는 약 1,094명이다.(교립학교 교당 학생법회 출석수 878명 별도)³⁴⁾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5개 학년의 학생들이 지역교당 학생법회에 출석하므로 각 학년 당 약 219명이 산출된다. 그 중에서 10%가 전무출신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약22명이고, 교립 고등학교 교당 학생법회 평균출석 수 268명을 3개 학년으로 나누어 산출된 89명의 학생 가운데 10%인 9명을 합하더라도 31명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학부 육영교육기관의 신입학정원 80명 대비 38.7%에 불과하다. 목표기대치를 5%로 줄인다면 지원승인자 15명, 신입학정원 대비 충원률 18.7%로 급감한다. 실제로 2014학년도 전무출신 신입지원자는 20명이고 승인자는 15명이었다.

전무출신 지원자 감소현상은 「교육발전안」 수립 당시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

- 33) **경남교구(1)**_신창원교당(12.23명), **광주전남교구(2)**_광주교당(10.15명), 여수교당(12.73명), **부산울산교구(1)**_청학교당(10.55명), **서울교구(2)**_신림교당(11.16명), 전곡교당(17.29명), **영광교구(3)**_묘량교당(12.81명), 영광교당(21.25명), 영산교당(17.84명), **전북교구(6)**_고창교당(19.72명), 부안교당(16.08명), 송학교당(13.15명), 전주교당(10.61명), 중길리교당(11.13명), 평화교당(15.55명), **중앙교구(8)**_남중교당(11.54명), 동영교당(24.3명), 문화교당(13.28명), 부송교당(24.66명), 북일교당(15.21명), 어양교당(12.16명), 영등교당(11.15명), 이리교당(15.79명), **충부직할교구(1)**_정토회교당(36.11명), **충북교구(1)**_충주교당(13.33명).
- 34) 원광고교당(95.27명), 원광여고교당(91.63명), 원광여중교당(144.53명), 원광정보예수고교당(81.18명), 원광중교당(254.13명), 지평선중학교당(34.69명), 한국보육원교당(14.69명), 해룡중교당(103.89명), 혼산학원교당(37.33명), 휘경여중교당(20.61명)_고등학교 268.08명, 중학교 외 609.87명.

로 교육발전계획 추진의 장애요인이 되었다. 전무출신 지원자 감소원인으로는 청소년교화의 침체, 가족계획으로 인한 인구감소, 전무출신 후생대책 미흡, 사회구조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성적자 지원감소현상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종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교단 내적인 요소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불합리한 ‘정녀지원서 제출 의무화’와 ‘심신이 건강한 남녀’와 ‘연령제한’ 등의 조항으로 제약받는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한편 관점을 전환하여 양적인 증가가 아닌 질적인 성장으로 선회하는 것도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전무출신 지원자가 당분간 감소할 추세임이 확인된 이상 ‘소수정예화 엘리트교육’으로 전환하는 결단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도 있다. 한 사람씩 매회 6년을 주기로 각 2년씩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교무의 평생교육훈련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³⁵⁾ 멀리보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뚜벅뚜벅 나아가는 원불교 미래를 기획할 필요도 있다.

더불어 출가와 재가를 가리지 않는다면 육영교육기관의 문호도 과감히 개방할 필요가 있다. 원불교학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활짝 열고, 예비교무는 진정한 전무출신으로 양성하는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예비교무와 교도와의 만남을 촉진시키는 부대효과도 거둘 수 있다. 입학 전 전무출신 지원승인 전제라는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육영교육기관 교육을 통한 서원확립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원불교 교무가 되고자 육영교육기관에 입학한다기 보다는 육영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통해 교무가 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해질 수 있도록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UN은 2020~2050년 사이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4%(643만명)를 해외이민을 통해 수입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주세교단건설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이상, 외국인 전무출신 지원자를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들과의 원만한 공존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V. 결어

2세기를 앞둔 원불교의 당면과제는 “사오백년 결복을 어떻게 맺을 것인가?”이다. 인류의 역사발전에 비추어볼 때 후기정보화시대에 해당하고, 인구변화, 가족구조변화, 단일문화, 제1언어 영어, 바이오컴퓨터와 인공지능장치, 비종교적 방향이 추세로 전망되는 원불교 2세기가 요청하는 교무는 크게 두 가지로 귀결된다고 본다. ‘교화전문가, 원불교학 전

35) 현행 전무출신 정기훈련, 역량개발훈련, 교구별 교무연수, 출가교화단회, 진학심의, 정책인재 등을 통해서 이미 가동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재배치와 연계 및 홍보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문인재'가 그것이다.

예비교무 교육과정을 통하여 훌륭한 교화자로서 교무를 양성하는 일, 원불교학을 연구하는 교무를 양성하는 일이 모두 중요하다. 원불교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후속인재를 양성할 시점이다. 이는 새로운 언급이 아니다. 이미 「교육발전안」 수립 이전부터 21세기를 앞두고 예비교무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학령인구 감소 및 교화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미래형 교육체계 정비, 미래 교화성장 및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인재양성을 위한 우수교원양성 및 지원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인재양성을 위한 재정자립화 방안 구축, 인재양성을 위한 선순환적 행정 및 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절실하다는 제언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교육이 교운이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미래에도 여전히 ‘교육이 교운이다.’ 하지만 교육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과 현실의 조율,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막상 교육현장에서는 기존의 교육방식과 내용을 되풀이하면서 개인의 각성과 소명 의식, 부단한 정진을 촉구하고 부족한 재원, 제한된 자원 속에서 인적 물적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후기정보화시대에 해당하는 원불교 2세기는 변화무쌍할 것이며, 지난 100년의 원불교 역사 속에 「교육발전안」이 마련한 예비교무 교육시스템으로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은 희박하다. 육영교육기관은 교수 여건의 변화에 따른 교수방법의 개선, 전무출신 지원자 감소에 따른 교육 잠재인구의 발굴과 수용, 학교 유희시설의 활용, 학교기능의 확대 등의 과제를 떠안게 될 것이다.

논자는 예비교무 교육에 있어서 중점을 두어야 할 방향을 몇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육영교육기관장 및 교수요원의 전문성과 지속성, 책임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예비교무 기초교육 강화 및 기본교육 내실화가 시급하다. 셋째, 교학교과와 서원교과의 융합교육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넷째, 원불교학연구 전문인재양성에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시대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인재발굴 방식으로 전무출신 지원자 급감을 극복해야 한다.

물론 이밖에도 교육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 교육연한, 교육체제,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일반대학원 및 기성 특수 전문인재 양성, 교수요원, 연구기관의 설치, 인재선발 및 근무제도, 교육환경, 교육시설, 교육재정, 장학제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방향과 쟁점을 도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에서는 우선 육영교육기관에 근무하면서 예비교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교무, 지도교무들이 일심합력하여 교단의 백년대계를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제2의 교육개혁이 추진되고 원불교 2세기의 결복교운을 힘차게 열어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병철,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의 특징과 전망」, 『종교연구』 62, 한국종교학회, 2011.
- 교육개혁위원회, 「예비교무 교육발전안 자료분석 및 평가보고서」, 2014년 3월 30일.
- _____, 「제208회 임시수위단회 및 수위단원 연찬 교육개혁위원회 활동보고」, 2014년 5월 13일.
- _____, 「제210회 임시수위단회 및 5차 수위단원 연찬 교육개혁위원회 활동보고」, 2014.
- 교육발전위원회, 「원불교 교육관계 자료집」, 1991년 9월.
- _____, 「원불교 예비교무 교육발전안」, 1991년 9월.
- 김경일, 「전무출신 지원자의 경향과 수급전망」, 원불교 교정원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 세미나 자료, 1994.
- 김귀성, 「묵산의 불법연구회 교육정책 고(攷)」, 『원불교사상』 제10·11집, 원불교사상연구원, 1987.
- 박정원, “출가 재가 후속 세대는 양성되고 있는가”, 『원불교신문』, 2013년 11월 1일.
- 신경렬, 「미래교육과 미래학교」, 『교육개발』, 2011.
- 양제우, 「서원교과 과정의 내실화 방안」, 『정신개벽』 제15집, 신통교학회, 1996.
- 양제우, 「예비교무 교육제도 개선방향」, 『원불교사상』 제21집, 원불교사상연구원, 1997.
- 영산선학대학교 자체평가실무위원회, 「2011학년도 대학 자체평가 인정을 위한 영산선학대학교 자체평가결과보고서」, 2011.12.14.
- 원불교 교육심의회위원회, 「원기83년도 원불교 예비교무 교육발전안에 의한 교역자 양성 교육기관 종합 평가 보고서」, 원기83년 9월.
- 원불교 교정원 교육부, 「원불교 예비교무 교육발전안 자료분석 및 평가보고서」, 2014.
- 원불교 예비교무 교육발전안 연구위원회, 「교단 100년을 향한 원불교 예비교무 교육발전안 연구」, 원기86년 6월 15일.
- 이광정, 『예비교역자가 달성해야 할 교육수준』, 법무실, 1999.
- 정순일, 「교림대학 교육개혁의 추이와 전망」, 『원불교사상』 제28집, 원불교사상연구원, 2004.
- 최준규, 「가톨릭 사제 양성 과정에서의 영성계발」, 『종교교육학연구』 제43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13.
- 하상의, 「교육의 문제를 돌아본다」, 월간『원광』, 2014년 1월.
- 하상의 편, 『전환시대의 성직자 교육』, 영산원불교대학교 출판국, 1997.
-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불교대학발전위원회,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의 교육목표」, 2005년 4월 8일, 「원불교대학원대학교 평가지표 자료」, 2011.7.29.

원고접수일: 2015년 5월 27일 심사일: 2015년 7월 5일 게재확정일: 2015년 7월 7일

연구자소개: 고시용

- ① 전공: 원불교학 / 소속: 원광대학교 부교수
- ② 관심영역: 한국종교, 원불교교육학, 원불교경전해석학
- ③ 주요논저: 「원불교 연구의 최근동향과 과제」, 「원불교의 혁신예법과 예전의 사회적 성격」, 「불교정전의 성립과 특징」, 「정전의 결집과 교리의 체계화」, 「원불교 대사전편찬을 위한 기초연구」, 「원불교 설교에 나타난 마음공부」, 「원불교 교전에 나타난 교화방법」, 「원불교교리형성과 도교사상」, 「원불교 종립학교의 종교교재」, 「예비전무출신 교육교재 개발」, 「원불교 수행방법과 영성개발」, 『클릭 원불교』(공저2), 『종교(원불교)』(공저), 『원불교 교리 성립사』

④ E-mail: kwgksy@wku.ac.kr

Abstract

The Second Century of *Won*-Buddhism and the Education of Ministers-in-training

Ko, Shiyong

Wonkwang Univ.

The study anticipates the major changes of the futur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makes important suggestions for the direction of the education of ministers-in-training, who will open the Second Century of *Won*-Buddhism.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human history, this era can be defined as the Post-Information Society. It is a time characterized by great change in population and in family structure, the use of single currency, English as the most common languag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on-religious attitudes. The Second Century of *Won*-Buddhism calls for two types of *kyomu*, or *Won*-Buddhist ministers; to be both experts of edification and specialists of *Won*-Buddhist Studies.

Educational organizations for Ministers-in-training of *Won*-Buddhism will bear the burden of the following tasks; improvement of teaching methods, finding capable candidates even with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Won*-Buddhist minister applicants, utilization of vacant and underused school facilities and the expansion of school's functions. I suggest crucial directions for the education of ministers-in-training.

First, the leader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the professional educators need specialty, continuity and responsibility as a precondition.

Second, it is urgent to reinforce the basic education and to insure the substantiality of the general education for ministers-in-training.

Third, the Education system must be an amalgamation of *Won*-Buddhist studies curriculum and Religious Vow-centered curriculum.

Fourth, cultivating specialists of *Won*-Buddhist studies must be considered with great care.

Fifth, The decrease of the number of *Won*-Buddhist minister applicants must be

overcome with a person-finding program that is compatible with the changing times.

*Key words: the Second Century of Won-Buddhism, Post-Information Society, Agenda on Education
Development of Ministers-in-training, Future Education, Won-Buddhist Studies*